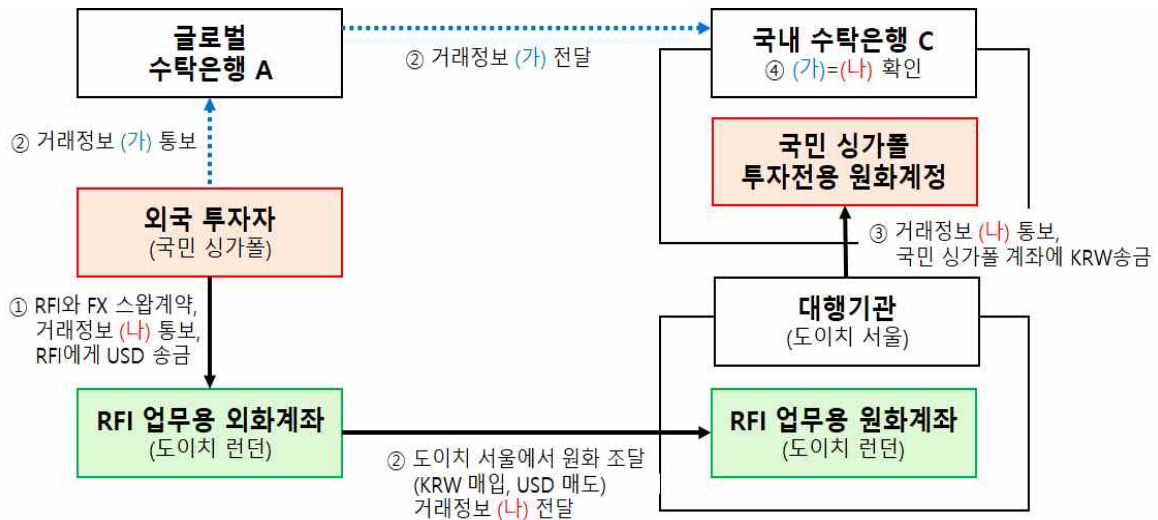


외국 금융기관을 통한 제3자 외환거래 첫 성공



1. 주요 내용

- 국민 싱가포르 지점과 도이치 런던 지점*은 외국인투자자의 RFI를 통한 국내 투자 절차 점검을 위해 최초로 제3자 외환거래 추진

* 양 기관 모두 「외국환거래법」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부에 RFI 등록을 완료하였으며, 실제 최종 고객과의 거래가 성사된 최초의 사례

- (일정) 5.10일(금) 거래 → 5.14일(화) 결제 완료 (근일물(Near))
- (목적) 국민 싱가포르*의 한국 국채 투자자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해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FX스왑 만기를 연장(롤오버)

* 국민 본점은 한국 기관이나, 싱가포르 지점 설립·영업은 현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하며, 국내 증권투자사에는 외국 투자자(비거주자) 지위에서 실시

- (금액) 약 300억원

- 국민 싱가포르와 도이치 런던은 금일 발표한 「제3자 외환거래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거래 쏘단계를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

2. 의의 및 향후 계획

- (의의) 외국인투자자가 본인의 계좌가 없는 RFI를 통해 국내에 투자해도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
- (계획) 7월 정식시행 이전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과의 다양한 시나리오 거래를 통해 발생가능한 문제가 없는지 지속 점검